

# 천도교[天道敎]

## 식민지 조선의 '정치'에 참여한 종교 단체

1905년(고종 42) ~ 미상



### 1 개요

손병희(孫秉熙)는 동학농민운동 이후 침체된 동학(東學) 세력의 결집을 도모하였다. 그는 지배층과 외세를 거부하던 기존 동학의 노선을 바꾸어 동학이 종교·정치결사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을 지원함으로써 교세의 정치적 기반을 확보한 손병희는 1905년 12월에 천도교(天道敎)로 이름을 바꾸고 교단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또한 일진회(一進會)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교세의 사회적 기반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1910년대에 교단이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이는 3·1 운동을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1920년에는 당시의 개조(改造) 사조(思潮)에 발맞추어 『개벽(開闢)』을 창간하였다. 이후 천도교는 민족운동과의 결합 방식을 둘러싸고 신파(新派)와 구파(舊派)로 분열되었으며, 각자의 정치적·교리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치 운동에 참여하였다. 1930년대에 조선총독부의 사상통제에 직면한 천도교는 기존의 '자치 운동' 노선을 포기하고 내선일가(內鮮一家)를 주장하였으며, 조선인의 전쟁 참여를 독려했다. 해방 이후, 활동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청우당(靑友黨)을 창당하였

지만, 1949년 남조선청우당이 해체되고, 북조선청우당도 세력이 약화되면서 군소종교로 전락하였다.

## 2 동학에서 천도교가 되다

동학농민운동 이후, 동학의 세는 매우 약화되었다. 이 와중에 손병희는 평안도·함경도·황해도 등지에서 동학 포교에 집중하는 등, 동학 세력을 결집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는 국내 지배층과 외세를 모두 거부하는 동학의 기존 노선이 시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동학이 종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명개화(文明開化) 노선으로 전환하여 정치적 입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손병희는 1901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때 일본에 망명 중이던 권동진(權東鎭)과 오세창(吳世昌)을 설득하여 동학에 입교시킨다. 또한 1903년 「삼전론(三戰論)」을 발표하여 시대 변화에 따른 동학의 노선 전환을 공식화하였다. 동학을 국교로 하자는 도전(道戰)을 바탕으로 산업 발전의 재전(財戰)과 외교의 언전(言戰)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손병희는 이를 통해야만 시대의 변화 속에서 '보국안민 평천하(輔國安民平天下)'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동학 세력은 1904년의 러일전쟁 때, 이전과는 다른 입장을 취했다. 손병희는 일본과 러시아 중에 승리할 나라를 잘 파악하여 승전국의 지위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승리를 예상하면서 군자금 1만 원을 헌금하고, 동학에 일본군 지원을 지시하였다. 일본군의 신뢰를 얻어 한국 정부의 탄압을 피하고 종교·정치결사로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였다. 이는 교세 확장의 정치적 기반이 되었다. 이어서 손병희는 '민회'를 통해 교세의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민회는 1904년 9월에 진보회로 이어지며, 12월에는 일진회에 합쳐진다.

1905년 12월 1일, 『제국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 천도교 창건 광고가 게재되었다. 이듬해 1월에 귀국한 손병희는 2월 10일 「천도교대헌」을 공포하여 교단의 중앙과 지방조직을 정비하였다. 1906년 3월, 전국에 72개의 대교구를 설치했다. 1907년 5월에는 교무 행정을 담당하는 교구장과 사회 교화 등을 담당하는 교령의 역할을 분리하였다. 한편 이 시기의 손병희는 일진회의 적극적인 친일노선에 큰 회의를 느꼈다. 그는 일진회를 향한 일반 민중의 반감이 천도교에 미칠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1906년 9월, 이용구(李容九)와 송병준(宋秉駿)을 출교시켰으며, 일진회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천도교에서 떠날 것을 지시하였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에도 천도교의 교세는 빠르게 확장되었다. 1910년에는 2만7,760호, 1911년에는 16만 6,314호가 천도교에 입교하였다. 천도교 측의 통계에 따르면 1916년 7월 현재 교인 수는 107만 3,408명이었다. 지방교구에 교리강습소를 설치하고 각종 학교를 설립·운영하면서 일반 민중에게 신임을 얻은 것이다. 이러한 교세 확장은 천도교가 3·1 운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손병희, 권병덕(權秉惠), 최린(崔麟), 권동진, 오세창 등의 천도교의 핵심 지도자 15명은 「기미독립선언서」에 민족대표로 서명하였다. 천도교의 월성미(月誠米)는 3·1 운동의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조직망은 운동의 전국적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 3 조선민족의 자치를 주장하다

3·1 운동에 참여한 많은 교인이 투옥되면서 천도교는 큰 위기에 봉착했다. 천도교의 재정을 뒷받침하던 월성미(月誠米)는 종래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일본 제일은행 예금 20만 원도 몰수당하였다. 천도교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단체를 결성하여 천도교의 교리를 연구하고 일반에 선전하고자 하였다. 천도교 지도자들은 3·1 운동 이후 식민지 조선을 휩쓸던 '개조' 사조에 발맞추어 종교를 통한 '정신개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1919년 9월 2일 천도교청년회(天道敎靑年會)가 발족되었다.

천도교청년회는 조직을 정비하고 민중을 향한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조선의 신문화(新文化)를 건설하기 위해 교육열을 고취하며, 농촌과 도시의 계몽, 전문가 양상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각 지방에 지회를 설치하고 출판물을 간행하며 순회강연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중에 가장 주목되는 것은 1920년 6월에 창간한 잡지 『개벽』이다. 관련사료 『개벽』은 '물질·정신과 과거·현재·미래를 열며, 만유(萬有)의 정로(正路)를 열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 신(新)건설'에 앞장 설 것임을 표명했다. 이돈화(李敦化), 김기전(金起田), 박달성(朴達成) 등 천도교 청년회 지도자들은 『개벽』을 통해 교리를 소개하고 신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글을 실었다. 『개벽』은 이 시기 조선사회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잡지가 되었다. 천도교청년회는 1923년 9월에 천도교청년당(天道敎靑年黨)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관련사료

한편 3·1 운동 이후 천도교단 내부에는 혁신의 방향을 둘러싼 분규가 있었다. 1925년 3월 31일부터 4월 2일에 걸쳐 개최된 제3회 종리사총회(綜理師總會)는 천도교가 구파와 신파로 분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구파와 신파는 민족운동의 방법과 방향을 다르게 파악했다. 구파, 즉 권동진·오세창·이종린(李鍾麟) 등은 '대동단결론'을 바탕으로 다른 사회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비타협적인 정치투쟁에 주력했다. 그들은 이러한 노선을 바탕으로 1926년의 6·10만세운동과 신파회(新幹會)에 참여했다. 천도교 구파는 사회주의자들에게 민족통일전선운동의 동반자 대우를 받았다. 반면에 신파, 최린·이돈화·김기전 등은 천도교 내의 주도권을 장악한 위에서 천도교 중심의 독자적인 활동을 중시하였다. 그들은 일제와 타협하는 가운데 '합법적 수단에 의한 항쟁'을 추구하였다. '자치 운동'은 이들의 정치노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다. 최린은 "조선민족의 진로는 내정(內政) 독립밖에 없다"며 청년당원들의 자치 운동을 촉구하였다. 다만 이들은 일제의 지배 내에서 참정권 등을 주장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의 한 연구는 1920년대 신파의 자치 운동이 조선과 일본의 '연방제'를 목표로 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 4 친일이 종교적 실천이 되다

1920년대 후반부터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파시즘 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조선의 정치 운동은 사회주의가 주도하는 계급투쟁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사회주의 세력은 종교단체를 개량주의의 핵심으로 보면서 '반(反)종교운동'을 벌였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1930년 12월에 제2

차 지방제도 개정을 단행함으로써 자치나 참정권 부여 등을 주장하는 정치 운동에 확실한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천도교 구파와 신파는 각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책을 고민하였다. 1930년 12월 합동대회는 이 고민의 산물이었다.

이후 천도교는 사회주의 세력의 반(反)천도교운동에 맞서는 등의 활동을 펼쳤지만, 1932년 4월에 재차 분열되었다. 구파가 천도교 내부에 머물면서 종교 활동에 집중하는 사이 신파는 자신들이 '조선운동의 영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사상통제에 직면하자 교단의 존속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운동이나 문화운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그들은 잠재적인 정치 기반도 함께 모색하였다. 1934년에 설립된 시중회(時中會)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이러한 맥락이었다. 천도교 세력은 시중회 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내선일가'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조선인 지원병 제도의 실시를 역설하였다.

천도교는 중일전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1938년 7월에 발족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의 발기단체로 참여하였다. 이후에도 관제 친일기구의 일부가 되기를 자처했다. 그들은 성신쌍전(性身雙全)·교정일치(敎政一致)를 일제의 황민화 정책과 연결하면서 교리를 통해 친일의 논리를 만들었다. 또한 대동방주의(大東方主義)를 공식적인 노선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인류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본민족과 조선민족이 협동하여 동양을 수호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를 위해 조선민족의 자치는 포기되어야 했으며, 내선일체를 통해 동방민족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친일의 정당성이 교리를 통해 뒷받침되면서 천도교 세력의 친일활동은 종교적 실천이라는 위상을 가지게 된다.

해방을 맞이하자 천도교 세력은 또 다시 활동의 정당성을 찾아야 했다. 그들은 당시의 상황을 일제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민족의 완전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규정하면서 스스로 활동의 명분을 부여하였다. 이 와중에 남조선청우당(靑友黨)이 결성되어 좌우합작과 미소공동위원회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미소공위의 지지부진에 따라 천도교단 내에서 유엔 감시 하의 총선거에 기대는 움직임이 증가하였고, 이는 천도교 세력의 우경화로 이어졌다. 남조선청우당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49년에 해체되었다. 한편 북한 지역에서는 1946년 2월에 북조선청우당이 독자적으로 창당되었다. 이 당은 북조선로동당과 소련 주둔군에 협조하였으나 북조선로동당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후 북조선로동당과의 대립이 표면화되면서 당의 활동은 위축되었다. 이후 천도교는 정치무대에서 완전히 후퇴하였으며, 종교단체로서도 군소종교에 머무르게 되었다.